1998년 19살에 실종됐다가 26년 만에 이웃집 지하실에 갇힌 채 발견된 오마르 빈 옴란. /사진=유튜브 채널 'EnnaharTv'19세에 실종됐던 남성이 무려 26년 만에 이웃집 지하실에 감금된 채 발견됐다.16일(현지시간) 영국 BBC, 알자지라, 더 선 등 외신은 1998년 실종된 알제리 남성이 26년 만에 이웃집 지하실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. 19살에 사라졌던 그는 45살의 중년이 돼서야 발견됐다.보도에 따르면 1998년 알제리 내전 당시 알제리 북부 젤파에 살던 오마르 빈 옴란은 직업 학교로 가던 중 실종됐다. 당시 그는 19살이었다. 가족들은 실종된 오마르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. 2002년까지 10년간 이어진 내전 중 오마르가 사망했을 거라 추측한 가족들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. 실제 당시 전쟁 기간엔 20만 명이 사망했으며, 무려 2만 명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. 26년이 흐른 뒤, 알제리 검찰은 엘 자디드에 있는 국립 헌병대 지부를 통해 한 익명의 제보를 접수했다. 오마르가 이웃집 지하실에 갇혀있다는 내용이었다.   
  
  
  
  
  
  
  
1998년 실종됐다가 26년 만에 이웃집 지하실에 갇힌 채 발견된 오마르 빈 옴란. /사진=유튜브 채널 'EnnaharTv'이에 경찰은 오마르가 살던 집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집 수색에 나섰고, 건초더미 아래 양 우리에 갇혀있던 오마르를 발견했다. 용의자는 61세 남성으로,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됐다. 구조된 오마르는 구조대원들에게 자기가 갇혀있는 동안 가족을 본 적이 있었지만 "납치범이 자신에게 걸었던 주문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"고 말했다고 한다. 수사 당국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, 오마르는 의료 및 심리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. 감금돼 있었던 지하실에서 발견돼 구조되는 오마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SNS(소셜네트워크서비스)를 통해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. 영상에는 머리에 지푸라기를 뒤집어쓴 오마르가 자신을 둘러싼 수색대에 놀란 듯 조심스럽게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.오마르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채 2013년 이미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. 젤파 경찰은 "오마르가 지하실에 감금돼 있을 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"며 "오마르의 심리 치료와 더불어 가해자는 엄정한 재판을 받을 것"이라고 밝혔다.